낙산사에 "호국불교 교육관 지을 터"

10 · 27심의위, 자문위원 위촉식서 밝혀

"낙산사 1만평에 호국불교 교육관을 겸한 10 · 27사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 조계종 총무부장)는 4월 22일 자문위원 위촉식을 봉행했다.

이날 자문위원단은 2004년 불교문화사업단장을 맡아 템플스테이 정착화를 이끈 현고 스님을 비롯해, 세영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주경 스님(조계종 환경위원장), 최병국, 강창일 국회의원, 허평환 前기무사령관, 안홍부 前공불련 사무총장, 이근우 前청담고교장, 이춘호 자유총연맹 부회장, 안동일 조계종 자문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 다섯번째)과 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왼쪽 세번째), 현고 스님(왼쪽 여섯번째)등 자문위원들.

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은 위촉식에서 "대부분의 피해 스님들이 개인적인 보상보다 종단 차원의 확실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보상금 1500억 원을 지원받아 낙산사 인근에 사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료관 관리 부담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관광사찰 및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중심으로 건립지를 물색했다. 낙산사가 1만평 부지 제공 의사를 밝혀 현재 가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10 · 27법난 사료관으로는 교육 효과가 낮을 것"이라며 "법난 뿐만 아니라 신라 원광 법사와 임진왜란 당시 승병, 독립운동 등을 전개한 스님 등 호국불교를 알리는 자료를 전시한다면 최근 쇠퇴하는 애국정신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활동도 당부했다.

한편, 심의위는 2010년 12월까지 활동기한인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 2013년까지 명예회복과 사료관 건립 등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나 속의 나' 찾은 시간

공불련 충주 석종사서 성지순례 법회봉행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참선 정진을 하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 이하 공불련)는 4월 18~19일 충주 석종사에서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

18일 입재식에서는 하복동 공불련 회장(감사원 감사위원)의 인사말, 이중갑 충주 부시장의 환영사,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의 법문,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의 축원순으로 진행됐다.

하복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표적인 참선도량에서 그간 잊고 지냈던 내면의 참나를 다시 찾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혜국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말과 생각 이전의 마음부처를 깨닫기 위해 말 나오기 이전의 내면을 응시하며 '몸뚱이 굴리는 이 놈이 무엇인가'를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1박 2일간 진행된 법회는 참선지도, 예불, 포행, 108참회, 참선실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간화선 수행에 대한 공무원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18일 충주 석종사 대웅전에서 열린 공불련 성지순례법회 입재식에 참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가억스님,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 하복동 공불련 회장(왼쪽부터).

김성우 기자

안동 봉정사 대웅전 국보 지정예고

봉정사 벽화 ·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상 보물 지정

안동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이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24일 안동 봉정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봉정사 대웅전은 2000년 해체조사 시 발견된 묵서명에서 '1435년(조선 세종17년)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연혁이 밝혀졌다. 가구형식(架構形式)과 세부기법이 단조로우면서 견실한 공법(工法)으로 제작됐으며, 전형적인 초기 다포양식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단청은 고려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창건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해 중요한 회화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22일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보물 제1614호)와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15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김진성 기자

군종특별교구, 레바논 동명부대 봉축법회

18일 호국동명사 기념비 제막식도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송경호 동명부대장이 연등을 달며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를 맞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국방부 군종과장(대령 김상래), 1군사 군종법사(중령 손병철) 등 위문단은 4월 18~20일 레바논 동명부대(부대장 송경호)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위문단은 동명부대장으로부터 평화정착 활동을 보고받고, 작전팀과 태권도 및 한글 교육 등 민사작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호국 동명사 기념비 제막식과 등달기 행사 실시 후 100여 명의 불자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축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일면 스님은 기원법회에서 "레바논의 평화 유지를 위한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자부심과 사명감, 신앙심을 바탕으로 무사귀환하는 그날까지 임무완수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월운 스님, 명예박사 학위

동방대학원대학서 수여전례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상옥)은 4월 18일 대강당에서 '월운 큰스님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전례'를 봉행했다.

학위 수여 후 월운 스님은 "사회의 언어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 불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세상에 나선 것 뿐"이라며 "읽기 쉽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장경을 버리기 위해 역경을 했다. 이것이 나의 역경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상옥 총장은 인사말에서 "월운 스님은 중국의 구라마집이나 현장과 견줄 역경보살"이라며 "학교 건학이념인 동방문화 창달과 스님의 업적이 부합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부모님 · 선생님과 창작등 경연

동대부중, 초파일 맞아 '등공양' 의미 나눠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교장 박일상, 이하 동대부중)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23일 강당에서 '학생 · 학부모 · 선생님과 함께하는 창작등 제작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전학년 27개 반 학생 · 학부모 · 선생님 350여 명이 참가해 창작연등을 만들며 연등 공양의 의미를 되새겼다.

창작등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90분. 제한된 시간 내에 종교성 · 창작성 · 예술성 · 협동성을 겸비한 다양한 창작등을 만들기 위해 참가자들은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담소를 나누며 신나는 축하 한마당을 연출했다. 김화실 교감은 "매년 진행되는 창작등 경연대회가 지난해에 비해 1학년 학부모의 참가율이 높고 더욱 활성화 돼 기쁘다"며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 계승과 창의력 신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주희 법사는 "제작된 연등은 1년간 법당에 전시될 것"이라며 "1개의 연등을 만들기 위해 12명이 합심해 만드는 과정이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연대회에 3년째 참가한 이재승(3학년)학생은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할 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연등을 만들면서 서로의 개성과 성격 · 취향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반 아이들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만들어진 창작등은 5월 1일 봉축법요식에서 수상결과를 발표 · 시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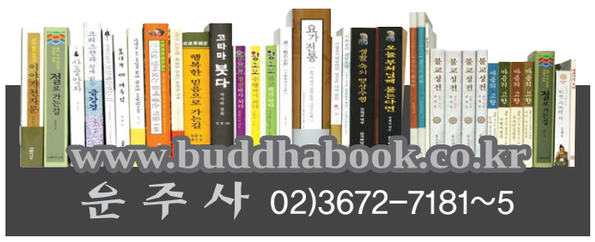
이상언 기자

108산사순례회,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 전달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도선사와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지난 4월 9일 청계천 등(燈)달기 및 자비나눔 행사, 용주사 108산사순례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관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 나눔에 동참해 줘 고맙다"며 108산사순례기도회의 활동을 치하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봉축행사 지원

조계종에 5000만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4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봉축위원장)을 예방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국민들에게 올해 봉축 행사가 부처님 가르침처럼 모두가 어울리는 나눔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임 원 공 고

종 정 석정관
승정원장 벽 봉 원로원장 도 원
원 로 법 령. 지 관. 월 타. 일 장. 무 송. 혜 암. 원 해. 일 우

호법원장 대 원 의전원장 원 담 교유원장 남 산 포교원장 보 광 연수원장 도 명 총무원장 도 선
비구니회장 혜 담

경북서부종무원장 석 문 경북중앙종무원장 태 룡 경북예천종무원장 명 허
경남중앙종무원장 청 강 경북성주종무원장 홍 재 제주중앙종무원장 의 공
전남중앙종무원장 원 행 충북중앙종무원장 선 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체 법
광주중앙종무원장 아 도 강원강릉종무원장 원 응 경기서부종무원장 법 경 기획원부원장 일 두

총무부장 도 흥 교육부장 정 봉 사회부장 청 암 포교부장 지 공
문화국장 보 성 포교국장 도 명 수행국장 보 각 사서국장 성 덕 포교국장 원 각

종립 미래로봉사단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대도심(어월순)
총 무 무생심(예옥자) 감 사 진불심(이순임). 법화심(김막두)

경남포교국장 충 효 인천포교국장 지 현 서울포교국장 보 현 경기포교국장 효 성 전통예술국장 승 원

법사승단 종무원

경남법사승 종무원장 도혜 대법사 울산법사승 종무원장 법광 대법사
충남법사승 종무원장 명보 대법사 포항법사승 종무원장 명성 대법사
대전법사승 종무원장 정대 대법사

중앙재무부장 자 운
대구포교국장 금 강 중앙종무국장 원 명
경산포교국장 송 정 국제포교국장 지 원

경남종무원 국장 혜 명
1.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 성 부산지부 051)865-7975
2. 경기지부종무소 지국장 덕 산 경기지부 031)483-4995

· 마산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2층) / 전화 055)224-1769
· 울산사무실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57-1 / 전화 052)251-7748
· 충남사무실 :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2리 1061 / 전화 031)244-3054
· 포항사무실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28 용성덩 동201호
전화 054)246-4452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532-4 / 전화 042)273-5137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 대표전화 054)682-5808 팩스 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26 2층 / 대표전화 02)3217-4611 팩스 391-8583